

Session 28 David's Restoration in Jerusalem (2 Sam. 19-20) 제 28 장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삼하 19-20 장)

I. DAVID'S LEADERSHIP AFTER THE CIVIL WAR (2 SAM. 19)

내전 후의 다윗의 리더십 (삼하 19 장)

- A. 2 Samuel 19 emphasizes how David and Israel carried their hearts after the traumatic and tragic events that had occurred related to Absalom's rebellion and death. We see both the right and wrong ways in which people carry their heart in crisis. The highlights here are in seeing how David gave honor and forgiveness to men who did not deserve it and seeing how it moved and unified them.

삼하 19 장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역 및 죽음과 관련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후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추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다루는 옳은 방법과 잘못된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존중하며 용서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연합되었는지의 부분이다.

- B. After Joab returned from the battle, he was told that David was overcome with grief for Absalom (19:1-4). This information quickly spread through the troops returning from battle; it shamed and offended them. Rather than celebrating their victory, they "stole back into the city" with the shame of a soldier who ran from a battle in fear (19:3). As the men passed through the city gate, they saw David covering his face and crying with a loud voice for Absalom (19:4).

요압은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1-4). 이 소식은 전투에서 돌아온 군대 전체에 급속히 퍼졌고, 이는 그들을 수치스럽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지도 못했고, 전쟁에서 무서워서 도망 온 병사들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야" 했다 (19:3). 병사들은 성문을 지날 때, 그들은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압살롬을 부르며 우는 것을 보았다 (19:4).

¹And Joab was told, "Behold, the king is weeping and mourning for Absalom."²So the victory that day was turned into mourning for all the people. For the people heard it said that day, "The king is grieved for his son."³And the people stole back into the city that day, as people who are ashamed steal away when they flee in battle. ⁴But the king covered his face, and the king cried out with a loud voice, "O my son Absalom! O Absalom, my son, my son!" (2 Sam. 19:1-4)

¹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²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³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⁴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니 (삼하 19:1-4)

- C. David failed to respond to their extravagant service and risk with appropriate gratitude. He was so preoccupied with his own personal pain that he neglected to give fitting and proper leadership to his men. His response created a new crisis in his army. There is a time and place to express personal grief and as well to a time to minister to the needs of those entrusted to your care by the Lord.

다윗은 그들의 아낌 없는 헌신, 그리고 위협을 감수한 것에 대해 적절하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에 너무도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군사들에게 합당하고도 적절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군대는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 개인적인 아픔을 표현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이들의 필요들을 섬겨야 할 때도 있다.

- D. It was right for David to grieve over Absalom's death, but he should have tempered it especially in light of Absalom having just rebelled against God's anointed, God's people, and God's kingdom. He continued his loud crying even longer than the time it took his army to march back to the city.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다윗은 슬픔을 자제했어야 했다. 다윗은 그의 군대가 성읍으로 행진하여 이후에도 계속 오래 울부짖었다.

1. David's inordinate grief clouded his judgment and consumed all of his energy, causing him to neglect his responsibility in a critical time in the nation's history. He had lost sight of the sacred responsibility that the Lord had entrusted to him as the anointed king of Israel.

다윗은 지나친 슬픔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고,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렸으며, 이로 인해 국가 역사에서 중요한 때에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켰다. 그는 주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신성한 책임을 망각했다.

2. David was both a king and father, and he needed to express himself appropriately both ways.

다윗은 왕인 동시에 아버지였지만, 두 가지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해야 했다.

- E. Joab was so upset by David's behavior that he barged into his house to warn him to stop (19:5-8). Joab let David know that he disgraced his soldiers who had risked their life for him and his family. Joab understood the power of disappointment and bitterness and its hindrance to God's purpose. David received Joab's warning so he arose to his leadership responsibilities and comforted his men.

요압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매우 화가나서 그의 집으로 쳐들어와 다윗에게 멈추라고 경고했다 (19:5-8). 요압은 다윗이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알게 했다. 요압은 실망감과 쓴 마음의 힘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요압의 경고를 받아들였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군사들을 위로했다.

⁵Joab came into the house to the king, and said, "Today you have disgraced all your servants who today have saved your life, the lives of your sons and daughters...⁶For today I perceive that if Absalom had lived and all of us had died today, then it would have pleased you well...⁷Arise, go out and speak comfort to your servants. For I swear by the LORD, if you do not go out, not one will stay with you this night. And that will be worse for you than all the evil that has befallen you from your youth until now."⁸Then the king arose and sat in the gate. (2 Sam. 19:5-8)

⁵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⁶이는 왕께서 ...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⁷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⁸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 (삼하 19:5-8)

II. THE DISPUTE IN ISRAEL

이스라엘 내의 논란

- A. The short civil war left the people in a national dispute. After Absalom's army was defeated, they returned to their homes where much debate arose regarding how they should respond to David's leadership as he returned from exile (19:9-10).

이 짧은 내전으로 인해 국가적인 논란이 일어났다.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에 패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사이에서는 왕위로 복귀하는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19:9-10).

⁹Now all the people were in a dispute throughout all the tribes of Israel, saying, "The king saved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¹⁰But Absalom, whom we anointed over us, has died in battle. Now therefore, why do you say nothing about bringing back the king?" (2 Sam. 19:9-10)

⁹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 ¹⁰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삼하 19:9-10)

- B. The people had been seduced by Absalom's promises and charisma, leading them to betray David and anoint Absalom as their king in his place. However, after Absalom's death, there were very different views about David circulating around the nation. The "Saul loyalists" and "anti-David" groups had lain low for years while David was in power. Absalom's conspiracy gave occasion for their negative feelings to surface. When it seemed that Absalom's conspiracy would triumph, the groups who favored David laid low. But now all these groups were vying for power and contending against each other for prominence in issues related to the government and its future decisions.

사람들은 압살롬의 약속과 카리스마에 현혹되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나라 안에는 다윗에 대해 매우 다른 시선들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사울의 충신들"과 "안티 다윗" 그룹들은 다윗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잠잠히 있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음모는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했다. 또한 압살롬의 음모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다윗을 추종하던 그룹은 잠잠히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룹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으며, 왕권과 미래 계획에 대한 사안들에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다.

- C. When David learned of his support from the men of Israel, then he sent a message through his two most respected spiritual leaders, Zadok and Abiathar, to the elders of his tribe, Judah, and to Amasa. Many of the elders of Judah had supported Absalom's conspiracy. How would David treat them? He took initiative to assure them that he would forgive and give them honor in his government.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는 가장 존경 받는 두 영적 지도자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다의 많은 장로들은 압살롬의 음모를 지지했었다. 다윗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윗은 먼저 나서서 그들을 용서하며 그의 정부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확인했다.

¹¹So King David sent to Zadok and Abiathar the priests, saying, “Speak to the elders of Judah, saying, ‘Why are you the last to bring the king back to his house, since the words of all Israel have come to the king...?’ ¹²You are...my bone and my flesh. Why then are you the last to bring back the king?’ ¹³And say to Amasa, ‘Are you not my bone and my flesh? God do so to me...if you are not commander of the army...in place of Joab.’” ¹⁴So he [Amasa] swayed the hearts of all the men of Judah...that they sent this word to the king: “Return, you and all your servants!” ¹⁵...Judah came to Gilgal, to go to meet the king, to escort the king across the Jordan.
(2 Sam. 19:11-15)

¹¹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¹²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¹³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 ¹⁴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¹⁵...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삼하 19:11-15)

1. **Last to bring back the king:** David wanted to let the elders of Judah know that the tribes of Israel had just made a commitment to support him and his kingship (19:10).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다윗은 방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자신을 지지하며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 (19:10).

2. **Gilgal:** On his journey back to Jerusalem the men of Judah gathered at Gilgal to go escort him over the Jordan River. Gilgal is 5 miles west of the river, 15 miles northeast of Jerusalem

길갈: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호위해서 요단 강을 건너가기 위해 길갈에서 모였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5 마일,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5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 D. David also forgave Shimei for cursing him (16:5-13; 19:16-20). Shimei was a leader in the camp of the “Saul loyalists,” being from the royal family of Saul. He had been a bold spokesman for the strong anti-David campaign that had been going on when it seemed that Absalom would triumph. By forgiving him David again signaled his desire for all to be accepted and given a new start.

다윗은 또한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한 것을 용서했다(16:5-13; 19:16-20). 시므이는 사울의 왕가 출신으로 “사울의 충신들” 진영의 리더였다. 그는 압살롬이 승리할 것 같았을 때 강력하게 일어났던 안티 다윗 진영에서 대담한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 다윗은 그를 용서함으로써, 모두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그의 열망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¹⁸...Shimei...fell down before the king when he had crossed the Jordan. ¹⁹Then he said to the king, “Do not let my lord impute iniquity to me, or remember what wrong your servant did on the day that my lord the king left Jerusalem...” ²⁰For I, your servant, know that I have sinned.”... ²³The king said to Shimei, “You shall not die.” And the king swore to him. (2 Sam. 19:18-23)

¹⁸...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¹⁹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²⁰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 ²³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삼하 19:18-23)

- E. Barzillai supported David and his army during their stay in Mahanaim (17:27-29). He travelled about 50 miles to celebrate David crossing the Jordan to resume his throne. David invited Barzillai to live in the royal court in Jerusalem to bless him for his extravagant generosity in Mahanaim.

바르실래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들을 지원했다 (17:27-29). 그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왕좌를 회복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50 여 마일(80km)을 이동해왔다. 다윗은 바르실래가 마하나임에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그를 예루살렘의 궁정에서 살도록 초청했다.

³¹And Barzillai...came down from Rogelim and went across the Jordan with the king...³²Now Barzillai was...eighty years old. And he had provided the king with supplies while he stayed at Mahanaim, for he was a very rich man.³³And the king said to Barzillai, “Come across with me, and I will provide for you while you are with me in Jerusalem.” (2 Sam. 19:31-33)

³¹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³² 바르실래는 매우 늙어 나이가 팔십 세라 그는 큰 부자 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³³ 왕이 바르실래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삼하 19:31-33)

1. Every conversation that David had as he was traveling back to Jerusalem was in context to people wanting his favor or forgiveness, but Barzillai wanted nothing from him. Barzillai owed him nothing and wanted nothing from him. He was there simply to express his love.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는 다윗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었지만, 바르실래는 다윗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바르실래는 그에게 신세진 것도 없었고 원하는 것도 없었다. 그는 다윗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그곳에 온 것이었다.

2. Barzillai loved with no strings attached. This wealthy elder man pictures true friendship without self-interest. Many become more self-centered as they grow in wealth and age.

바르실래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다. 이 부유한 노인은 사리 사욕없는 진정한 우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적이 된다.

- F. As David was traveling back to Jerusalem, the men of Israel demanded that he give an explanation concerning why he had allowed the men of Judah to “steal him away” (19:41).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훔쳐가도록” 허락했는지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41).

⁴¹Just then all the men of Israel came to the king, and said to the king, “Why have our brethren, the men of Judah, stolen you away and brought the king, his household, and all David’s men with him across the Jordan?”⁴²So all the men of Judah answered the men of Israel, “Because the king is a close relative of ours. Why then are you angry over this matter? Have we ever eaten at the king’s [government’s] expense?...”⁴³And the men of Israel answered the men of Judah, and said, “We have ten shares in the king; therefore we also have more right to David than you. Why then do you despise us—were we not the first to advise bringing back our king?” Yet the words of the men of Judah were fiercer than the words of the men of Israel. (2 Sam. 19:41-43)

⁴¹은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⁴²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정부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 ⁴³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삼하 19:41-43)

1. They interpreted David's allowing the men of Judah to help transport the royal household across the Jordan as giving Judah more honor. Before David could respond, the men of Judah answered defensively—claiming their family status as the reason for deserving the honor.

그들은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왕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돕게 허락한 것을 유다를 더 높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들의 가문이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하다고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2. Israel retorted that their larger number was the reason they deserved more honor or had greater claim on David—Israelites had ten shares in the king. Plus the northern tribes were the “first” to promote the idea of bringing David back to Jerusalem as king (19:9-10).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수가 많기에 더 큰 명예를 받기에 합당하며, 다윗에 대해서 더욱 주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은 왕에 대해서 열 몫(지파의 수가 열)이 있었다. 게다가 북방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예루살렘에 모시는 일에 대해 “먼저” 주장했었다 (19:9-10).

3. Both missed seeing the big picture—that God was restoring their anointed king to Jerusalem.

양쪽 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기쁨부음 받은 왕을 예루살렘으로 복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다.

- G. There were many unresolved tensions of bitterness and division even after the civil war was over. In the body of Christ today we can see the overly sensitive and easily offended mindset that occurred in Gilgal that day. We all proclaim our desire that Jesus rule over us, but then we yield to fleshly attitudes as different groups or ministries claim to be biggest, best, or first in importance or honor.

이 내전이 끝난 후에도 나라 안에는 쓴 마음과 분열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많은 긴장감들이 있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도 길갈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쉽게 마음이 상하는 태도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지만, 우리는 다른 그룹들이나 사역들에 대해 자신이 가장 크고 최고이며, 가장 명예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육신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곤 한다.

¹And I, brethren, could not speak to you as to spiritual people but as to carnal, as to babes in Christ. ²I fed you with milk and not with solid food; for until now you were not able to receive it, and even now you are still not able; ³for you are still carnal. For where there are envy, strife, and divisions among you, are you not carnal and behaving like mere men? ⁴For when one says, “I am of Paul,” and another, “I am of Apollos,” are you not carnal? (1 Cor. 3:1-4)

¹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²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³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고전 3:1-4)

III. SHEBA'S REVOLT AGAINST DAVID FAILS (2 SAM. 20)

다윗에 대한 세바의 반란이 실패하다 (삼하 20 장)

- A. The debate between the men of Israel in the north and the men of Judah in the south escalated into another serious national conflict. The point of the debate was centered on who honored David the most and was thus most deserving of honor from David. It resulted in men deserting David again.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 사이의 논쟁은 또 다른 심각한 국가적 갈등으로 확대됐다. 논쟁의 요점은 누가 더 다윗을 대접해 주었는지, 따라서 누가 다윗으로부터 높임을 받기에 더 합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또 다윗을 떠나게 됐다.

- B. Sheba was from Benjamin, the tribe of Saul. He was probably a high-ranking military officer who exploited the strife between the Israel and Judah to start another revolt against David.

세바는 사울이 속해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는 아마도 군대의 고위급 장교였을 것이며,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분쟁을 이용해서 다윗에 대한 또 다른 반란을 계획했다.

¹And there happened to be there a rebel, whose name was Sheba... a Benjamite. And he blew a trumpet, and said: "We have no share in David, nor do we have inheritance in the son of Jesse; every man to his tents, O Israel!" ²So every man of Israel deserted David, and followed Sheba... (2 Sam. 20:1-2)

¹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 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²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세바를 따르나 ... (삼하 20:1-2)

- C. Joab pursued Sheba to Abel, a city in northern Israel. Sheba was killed; the revolt came to an end.

요압은 세바를 쫓아 북 이스라엘의 도시인 아벨로 갔다. 세바는 죽임을 당했고, 반란은 끝이 났다.

¹⁴And he [Sheba] went through all the tribes of Israel to Abel... ¹⁵Then they [Joab] came and besieged him in Abel... ¹⁶Then a wise woman cried out from the city, "Hear, hear! Please say to Joab, 'Come nearby, that I may speak with you.'"... ²²The woman in her wisdom went to all the people. And they cut off the head of Sheba...and threw it out to Joab. (2 Sam. 20:14-22)

¹⁴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 ¹⁵ 이에 그들이 [요압]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 ¹⁶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²²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 (삼하 20:14-22)

- D. David as God's anointed king fully was fully restored to Jerusalem, but he was still resisted by many who did not want him in leadership over their nation. We would think that by the last decade of David's reign that the majority would be supporting him.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에 온전히 복위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사람들과 부딪쳐야 했다.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말년에는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곤 한다.

1. One of the biggest contributors to burnout in leadership in ministry is disillusionment related to unrealistic expectations. For instance, imagining that by being faithful and diligent in serving people for years one would not be attacked by people in the body of Christ.

사역의 리더십이 탈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오는 환멸(실망감)이다. 이 비현실적인 기대의 예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수 년 동안 신실하고 부지런히 섬기면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Paul and David at the height of their leadership were attacked and resisted by God's people.

바울과 다윗은 그들의 리더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 당하고 배척당했다.

3. Popularity, public opinion, and favor with God's people can change very quickly both for and against God's servants. Therefore it is not wise to place too much confidence in your current popularity or lack thereof.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인기나 공적인 평판, 그리고 사람들의 호감도는 매우 빠르게 변한다. 그러므로 현재 대중의 관심을 받거나, 혹은 그것이 없다는 것에 너무 많은 확신을 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 E. Even in context to David's victories in this hour, troubles continually arose.

문제들은 다윗이 승리한 상황에서조차 계속해서 일어났다.

***22...strengthening the souls of the disciples, exhorting them to continue in the faith, and saying, "We must through many tribulations enter [experience more] the kingdom of God."* (Acts 14:22)**

***22*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경험을 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행 14:22)**

- F. Absalom and Sheba's rebellions and the various responses to them give us insight into the complex dynamics that will occur in the end times when many will be offended and will betray another.

우리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고 서로를 배반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에 대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10*And then many will be offended, will betray one another, and will hate one another. (Mt. 24:10)**

***10*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 24:10)**

- G. One of the most important truths to learn from David is how to respond to God with confidence and gratitude so that we will respond to people with generosity and humility with much forgiveness.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확신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지의 부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넓은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게 될 수 있다.